

## Study on Family Experiences of Smoking Adolescents

Kim, Jin Kyoung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Background:** Adolescent smoking is not only associated with health risks, but also with other addictions and deviant behaviors, such as alcohol and drug abuse. The average age of first smokers in Korea is 13.2 years old, which is very low, requiring special social attention to youth who smoke. Considering that the first social group that adolescents come into contact with is the family,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family experiences of smoking adolescents.

**Purpose:**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smoking behavior and family experiences of smoking adolescents by in-depth exploration of the family experience, which is the primary support system of smoking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pecific action strategies and alternativ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moking prevention and smoking cessation among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Methodology:** Five smoking adolescents were selected through intentional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hich is an appropriate method for showing and understanding the complex dynamics of the smoking adolescent family, was analyzed.

**Findings:** Five themes appeared in the analysis results were 'smoking-tolerant family environment', 'disrup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stressful family', 'weak ties between family members', and 'active efforts of parents'. This family experience of smoking adolescents was identified as a major factor leading to smoking behavior along with the initial awareness of smoking

**Conclusions:** As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hat can be suggested for young smokers and their families, customized interventions for young smokers' families, simultaneous parent and sibling interventions, and changes in the smoking culture tolerant are suggested

**Keywords:** smoking adolescents, smoking behavior, family experiences, qualitative case study

---

**Corresponding Author:** Kim, Jin Kyoung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2-5223-4648>

Email: [jinny3865@naver.com](mailto:jinny3865@naver.com)

Received: December, 29, 2021 Revised: March, 27, 2022 Accepted: March 27, 2022 Publication: March, 31, 2022

## 흡연청소년의 가족경험에 관한 연구

김진경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배경:** 청소년 흡연은 건강위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 약물남용 등 다른 중독 및 일탈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흡연 경험 연령은 평균 13.2세로 매우 낮아 특별히 흡연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데, 청소년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회집단이 가정임을 감안할 때, 흡연청소년의 가족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흡연청소년의 일차적 지지체계인 가족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흡연청소년의 흡연행동과 가족경험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과 가족의 흡연예방 및 금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하여 흡연청소년 5명을 선정하였고,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흡연청소년 가족의 복잡한 역동을 보여주고 이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방법인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 각 사례를 기술하고 사례들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찾아 기술 및 해석하였다.

**결과:**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제는 5개로 ‘흡연에 관대한 가족환경’, ‘가족 간 대화 단절’,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가족’, ‘가족 간의 약한 유대관계’, ‘부모의 적극적 노력’으로 나타났다. 흡연청소년의 이러한 가족경험은 흡연에 대한 최초의 인식과 함께 흡연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사점:** 흡연청소년과 가족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으로 흡연청소년의 가족 맞춤형 개입, 부모 및 형제자매 동시에 개입, 관대한 흡연문화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흡연청소년, 흡연행동, 가족경험, 질적 사례연구

**교신저자:** 김진경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ORCID: <http://orcid.org/0000-0002-5223-4648>

Email: [jinny3865@naver.com](mailto:jinny3865@naver.com)

**투고일:** 2021. 12. 29. **심사일:** 2022. 3. 27. **게재확정일:** 2022. 3. 27. **발행일:** 2022. 3. 31.

## I. 서 론

세계보건기구(2019)에 따르면, 흡연은 매년 전 세계에서 7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흡연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결과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영향이며, 폐의 기능 감소와 심혈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폐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의 건강하지 못한 행태로 고착될 수 있다[1]. 나아가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성인기에도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했을 시 성인기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에 비해 금연이 어렵다[2].

또한 청소년의 흡연은 건강위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 약물남용 등 다른 중독 및 일탈행동과도 관련이 있다[3]. 흡연 청소년의 대부분이 결석 및 성적하락의 학업문제와 학교폭력, 학교활동에 불참하는 문제, 질병이나 상해 등의 신체적 문제, 고위험 성행위, 자살 및 범죄, 다른 약물남용, 뇌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알코올의존과 사망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4, 5], 반복적인 흡연행동은 지속적이고 중독적인 흡연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6].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최초의 흡연 경험 연령이 평균 13.2세로 매우 낮아 특별히 흡연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기초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환경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 성격형성, 자아개념형성, 정서발달, 가치관정립, 행동발달 등에 영향을 미친다[7]. 그 중에서도 부모는 청소년 흡연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가장 의미 있는 환경으로 그 영향력이 크고[8], 청소년은 부모의 흡연과 같은 가정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9]. 또한 부모 및 가정환경으로 부모의 흡연여부, 부모의 감독수준, 애정적인 태도, 부모와의 대화정도, 가족관계의 만족도와 같이 부모의 관심과 가족기능이 청소년 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11, 12, 13]. 더 나아가 청소년 흡연은 가족 내 갈등과 부정적인 정서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14]도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 및 가족환경의 흡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분위기는 청소년의 흡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15], 청소년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회집단이 가정임을 감안할 때, 가정에서의 부모흡연은 청소년들에게 흡연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15].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흡연행동의 예방 및 금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흡연의 해로움을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처음 노출되고 흡연행동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최초의 계기인 그들의 부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8], 이는 곧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과 관련한 가족에 대한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 및 부모나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가족환경 안에서의 특정요인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지만[8, 16, 17, 18, 19, 20] 흡연청소년의 성장배경과 가족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가족기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족경험에 대해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흡연청소년의 입장에서 가족경험 전반을 다룬 연구는 흡연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생생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흡연청소년이 경험한 가족경험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가족 내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가족경험의 맥락적 조건을 밝혀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에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고,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흡연과 청소년

청소년기는 신체적·인격적 완성을 위해 심리적 변화와 격동을 경험하는 시기로써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억압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발달과 함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도한 과업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21]이므로 청소년기에는 흡연과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 9.3%, 여학생 3.8%였고, 남녀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큰 변화가 없으나 여학생은 최근 3년간 증가경향을 보였다.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청소년기 흡연경험은 그 손상정도가 성인에 비해 더 크다[22].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지고 금연이 어려워지며 평생 흡연자 및 중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23]. 또한 시작연령과 흡연량에 따라 폐암발생과 관련되어 있어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폐암발생률이 높고, 폐암에 의한 사망률도 흡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24, 25]. 더욱이 흡연을 시작한 연령이 17세 이전인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률이 13.6배나 더 높으며, 흡연을 시작한 연령이 15세 이전인 흡연자는 20세 전후에 흡연을 시작한 흡연자보다 암발생률이 5배 더 높았다[26].

한편 청소년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행복정도는 감소하고, 스트레스, 슬픔, 절망감 경험과 높은 우울감 경험, 자살 생각이 증가하며[27, 28]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의 정신건강학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29]. 나아가 조기흡연 경험은 흡연자의 자살 시도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30]. 청소년들은 흡연 후 친구와의 싸움, 가족과의 마찰, 경제적 문제, 신체 건강문제 및 각종 사고 등의 부정적인 경험의 비율

이 높아져[31]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청소년 흡연행동 패턴은 가정, 학교 및 사회 생활환경이나 가족, 교우관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고 같은 또래의 흡연집단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고 권장하기까지 하는 특성이 있다[32, 3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흡연은 신체적 해로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 해로움, 음주와 약물남용 등 다른 중독 및 일탈행동과도 관련이 있기에 다른 어떤 연령보다 청소년들의 흡연행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 2. 흡연청소년과 가족

청소년의 흡연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 이외에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교사 및 또래관계 등 다양한 체계와의 상호작용 즉, 개인의 환경적 특성과 그로 인한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기에[16]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 담배에 처음 노출되기 시작하고 청소년 초기에 그들은 흡연에 대한 부모의 규범과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흡연이 청소년들의 흡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34], 부모의 흡연은 청소년의 흡연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인자로 확인되고 있다[16]. 흡연하는 부모의 청소년이 비흡연 부모를 가진 청소년보다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이 흡연하는 부모와 동일시와 모방을 통해 흡연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허용적인 왜곡된 가치기준과 신념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35]. 청소년기 흡연은 개인적 문제보다는 환경의 영향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된다[36].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가족경험 안에서의 특정 요인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흡연청소년의 가족경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다.

곽연희, 김태준[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인 가족요인과 친구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부모요인보다 친구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흡연청소년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의 역동성, 가족기능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가족경험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손선옥, 전진아, 박현용[37]은 남자 청소년 흡연행동의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적 양육행동이 흡연행동의 중단적인 변화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경험을 탐색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흡연청소년 가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

족관련 요인들을 밝혔지만 가족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역동성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흡연청소년이 경험한 가족경험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에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가족 내 경험과 어려움의 맥락적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흡연청소년들이 가족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관계에서의 역동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제를 풍부하고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중에서도 질적 사례연구란 사례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38]. 사례연구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 질문과 연구 설계 방법, 그리고 연구 분석 방법 등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징이 있다[40]. 사례의 실재는 맥락과 분리되어 연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39]이기 때문에 사례연구는 독특한 기능과 작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계 체계 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엇이 중요한지 맥락 내에서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흡연청소년과 가족경험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주제는 맥락을 고려해 풍부하고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흡연청소년의 구체적인 경험과 그 의미, 그리고 가족구성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이를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흡연청소년의 가족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게 된 가족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흡연청소년 가족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흡연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족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금연상담 실무자에게 대상자를 의뢰하였고, 학교 선생님은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의도적 표집 방법

을 통해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추천을 부탁하기 전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일 것, 둘째, 흡연 행동 지속기간이 1년 이상 일 것, 셋째, 학교에서 흡연행동으로 인해 적발 혹은 징계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따라 본 연구는 의도적 표집 방법과 눈덩이 표집 방법이 함께 병행되었다. 연구자는 다수의 연구참여자 추천받았으나, 학교 금연상담 실무자, 학교 선생님과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앞서 언급한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흡연청소년 5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은 1~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1회 면접시간은 50분에서 60분이 소요되었다. 면접 시 연구참여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쉬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연구참여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학년	성별	첫 흡연 연령	가족유형	가족관계
연구 참여자1	19세	고3	남	13세	외벌이(부) 양부모 가정	부모/누나(성인)/본인
연구 참여자2	17세	고1	남	15세	맞벌이 양부모가정	부모/본인
연구 참여자3	18세	고2	남	16세	맞벌이 양부모가정	부모/형(성인)/본인
연구 참여자4	18세	고2	남	13세	외벌이(부) 삼대가정	조모/부/본인
연구 참여자5	19세	고3	여	17세	맞벌이 양부모가정	부모/동생(중3)/본인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Creswell[41]이 제시한 사례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사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료충분 조건에 따라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녹음된 자료와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각 사례에 대한 의미단위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범주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자료의 전사와 분류 및 범주 과정은 수집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드러난 주제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흡연행위와 관련된 가족경험에서의 의미단위를 찾아내었고, 의미단위들을 분류하는 작

업과 비교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쳤다.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고, 의미 단위들과 하위범주를 포함할 수 있고 중요한 축이 되는 핵심범주들을 도출해 내었다.

#### 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연구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소년의 부모와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부모에게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방법 등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취됨을 밝히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면담 이후 언제라도 면담의 내용 삭제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혔다. 면담 자료는 익명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으며,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s)’의 승인을 받았다.<sup>1)</sup>

## IV. 연구결과

### 1. 연구참여자 가족 소개

연구참여자들의 가족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가족경험과 성장시기별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가. 연구참여자 1의 가족

연구참여자 1의 가족은 회사원인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니, 누나로 구성된 4인 가족이다. 아버지는 연구참여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흡연을 하셨으며, 방에서도 계속 흡연을 하셔서 벽지의 색이 변할 정도로 흡연을 즐겨하신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인이 된 누나도 흡연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연구참여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울 때면 누나가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곤 한다.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안 곳곳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담배 한 개비를 몰래 가지고 나와 친구와 장난삼아 피워본 것이 첫 흡연행동이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지속적으

1) SSU-202009-HR-250-1



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학교 선생님의 의해 여러 차례 흡연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어머니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학교 선생님께 걸리지만 않게 흡연을 하라고 하시며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아시는 아버지는 본인이 애연가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금연을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못한다.

연구참여자는 아주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항상 부모님이 싸우시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부모님이 싸우실 때면 무서움에 누나 옆에서 떨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지금도 생생한 두려움으로 남아있다.

#### 나. 연구참여자 2의 가족

연구참여자 2의 가족은 부모와 외동으로 구성된 3인 가족이다. 두 분은 모두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연구참여자는 항상 집에 혼자 남겨졌다. 연구참여자의 부모님은 항상 혼자 있는 자녀를 안쓰러워하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셨고, 연구참여자에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연구참여자는 또래에 비해 많은 용돈을 받았으며,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덕분에 연구참여자는 담배를 구매하는 비용에는 전혀 부담이 없으며, 같이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에게도 가끔 담배를 사주곤 한다. 연구참여자는 매일 혼자 있는 것이 싫고 어색해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고, 이는 곧 음주·흡연 등으로 이어져 부모님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자 실업계는 절대 안 된다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집과는 멀리 떨어진 기숙형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사고를 많이 치고 학교에서도 문제아 취급을 받아 부모님과 잦은 충돌이 있었고, 부모님 간의 다툼도 많이 보게 되었다. 기숙형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자신을 골칫덩이 취급하는 부모님이 자신을 멀리 보내려는 선택이라며 침울해하면서도 부모님과의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다. 연구참여자 3의 가족

연구참여자 3의 가족은 맞벌이 부모님과 형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회사에 다니시며, 형은 대학생이다. 연구참여자는 아버지가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어머니의 회사 생활은 어떠한지 자세히 모른다. 그만큼 가족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구참여자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흡연을 하셨던 경험이 있고, 어머니는 오래 전 금연을 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연구참여자는 어린 마음에 자신도 어른이 되면 당연히 흡

연을 하는 것인 줄 알았다. 연구참여자는 집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지내곤 하는데, 담배에 관심이 많아 담배리뷰를 하는 유튜버 채널을 구독하여 즐겨보고 있다.

연구참여자가 어렸을 때에는 가족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진학할 수록 그러한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다. 형과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저럭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형이라는 이유로 계속 시키고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 지금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 집에서 마주쳐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연구참여자는 어렸을 때 기억도 나지 않는 사소한 일로 형과 말다툼을 하다 심한 욕설로 마무리 되었던 상처가 있다. 그 이후로 형과 화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 좋은 기분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교류가 없어도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라. 연구참여자 4의 가족

연구참여자 4의 가족은 조모와 부, 외동인 연구참여자로 구성된 삼대가정의 3인 가족이다. 연구참여자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가 거의 연구참여자를 양육하였다. 아버지는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며 멀리 일을 가실 때도 있다. 그래서 집에는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얼굴을 보기 힘들고, 어머니와는 이혼 후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데, 최근에 만난 적은 없다. 바쁜 아버지로 인하여 친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할머니는 연구참여자가 학교에 늦게 등교를 하고 무단결석을 해도, 친구들과 담배피우는 것을 아셨을 때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싸웠을 때도 크게 혼내시지 않으셨다.

연구참여자가 사는 동네에는 공장들이 많고 외국인노동자도 많다. 초등학생이었던 연구참여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담배를 사서 1, 2개비만 피우고 버리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거의 새 것의 담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일명 '겉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재미삼아 피우던 담배는 어느덧 일상이 되어 버렸다. 연구참여자는 흡연뿐만 아니라 음주와 도박 등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꾼이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을 포함해 형, 동생 할 것 없이 안 싸워본 상대가 없으며,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성격이다. 연구참여자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걸려 경찰서에 가보기도 하고, 도박을 하며 빚을 져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내보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말썽꾸러기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본인 어렸을 때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시며 남자가 그런 것쯤은 한 번씩 경험 해 봐야 한다고 하시며 혼내시진 않으셨다.

**마. 연구참여자 5의 가족**

연구참여자 5의 가족은 맞벌이 부모님과 남동생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회사원이다. 남동생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가족들과는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 아버지의 억압적인 언행과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태도를 보여 대립할 때가 있다.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다.

연구참여자는 줄곧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누구와도 잘 어울린다. 또한 미용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연구참여자는 메이크업아티스트를 꿈꾸고 있어 미용 자격증도 취득하고, 메이크업 관련 연습도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음주·흡연을 하게 되었고, 학교 선생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 딸의 금연을 간절히 원하는 어머니를 본 연구참여자는 금연을 결심하였고, 혼자 참을 때에는 그럭저럭 할 만 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금연 의지가 무너지곤 해서 오랜시간 금연을 지속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어머니는 연구참여자에게 금연을 권하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그 메시지를 받은 연구참여자는 어머니의 진심어린 걱정과 다시 한 번 금연을 생각하게 된다.

**2. 주제 분석**

흡연청소년의 가족경험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5개의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인 흡연청소년을 통해 그들의 가족경험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청소년들의 흡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었다.

**가. 흡연에 관대한 가족환경**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은 대부분 흡연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부모님이 직접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모습을 보였다. 미성년자인 연구참여자가 담배를 직접 구매하기 힘든 경우에는 성인이 된 형제로부터 담배를 대신 구매하여 전달받았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흡연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부모님이 집에서의 흡연을 허락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흡연사실을 가족들이 알지만, 금연을 권유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부모님이 흡연을 하시기에 적극적인 금연을 권유하지 못하고 흡연행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 부모님의 흡연**

연구참여자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흡연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자라온 경우가 많았다. 부모

〈표 2〉 흡연청소년의 가족경험 분석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흡연에 관대한 가족환경	부모님의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하시는 부모님을 통해 담배에 관심을 갖게 됨</li> <li>· 부모님이 흡연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람</li> </ul>
	흡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흡연사실을 아시고 끊으라고 말만 하심</li> <li>· 부모님도 피우시기 때문에 끊으라고 말하지 못함</li> <li>· 형제가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줌</li> </ul>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	가족 간 대화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벌이 부모님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li> <li>· 가족과 함께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음</li> </ul>
	무관심한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함</li> <li>· 자녀가 집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심</li> </ul>
	가족과의 시간이 어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있어도 어색한 사이</li> <li>· 함께 식사자리 가져본 기억이 너무 오래됨</li> </ul>
가족 간의 약한 유대관계	잡은 다툼을 하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의 잡은 다툼</li> <li>· 잡은 다툼으로 인해 가족 분위기가 좋지 않음</li> </ul>
	불안한 공간인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에 있으면 편하지 않은 마음</li> <li>· 갈등상황이 생기면 집을 나와 버림</li> <li>· 가출해 친구 집에서 지낸 적도 많음</li> </ul>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가족	자녀를 억압하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는 무서운 존재</li> <li>· 자녀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통보함</li> <li>· 부모에게 찍힌 낙인</li> <li>· 부모의 심한 간섭으로 숨막힘</li> </ul>
	자녀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골칫덩이 취급</li> <li>· 자녀가 희망하는 꿈을 무시함</li> <li>·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음</li> </ul>
	형제 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 간 다툼이 갈등으로 심화</li> <li>· 데면데면한 형제 사이</li> <li>· 형제와 차별하는 부모</li> <li>· 형제와의 잡은 욕설로 인한 상처</li> </ul>
부모의 지지체계	튼튼한 부모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금연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존재</li> <li>· 금연을 위해 언제든지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함</li> </ul>
	자녀의 금연을 지원하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노력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li> <li>· 자녀의 금연을 위해 금연에 도움 되는 것들을 사주심</li> <li>·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주시려 노력</li> </ul>

님의 흡연 모습을 항상 보며 흡연이 안좋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자신도 부모처럼 성인이 되면 당연히 흡연을 하리라 생각하였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담배를 피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봐와서 담배 피우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아, 나도 성인이 되면 당연히 피우겠구나. 근데 이렇게 빨리 피우게 될 줄은 몰랐죠” (연구참여자 3)

아빠가 담배를 진짜 많이 피우시고, 못 끊으세요. 제가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갈테니 아빠는 금연 하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셨어요. 근데 웬만한 아빠들은 담배 다 피우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1)

## 2) 흡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가족

연구참여자들의 부모님은 흡연을 하시는 분이 많았다. 비흡연자인 어머니는 흡연 사실을 처음 아셨을 때에는 화를 내시며 담배를 끊으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 안에서의 흡연을 허락하셨고, 흡연자인 아버지는 끊으라고 말만 하실 뿐 적극적인 금연을 권유하지 않으셨다.

처음에는 엄청 화내셨어요. 아빠도 끊으라고 말하시긴 하셨는데, 아빠도 담배를 피우셔서... 지금은 뭐 포기하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걸리지만 말라고 말하세요.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퇴학이니까 (연구참여자 1)

저는 담배 피우는 것을 걸린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진짜 할 것 못할 것 다 하고 다녔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도 내보고, 술집 갔다가 걸려서 경찰서도 가보고... 다른 것에 비하면 담배는 작은 일이죠. 근데 아빠도 저랑 똑같았대요. 그래서 남자라면 한 번쯤 다 경험해봐도 된다고 해서 별 말씀 안하세요. (연구참여자 4)

### 나.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

연구참여자들은 바쁜 부모님으로 인해 집에 매일 혼자 남겨진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도 혼자 밥 먹기는 물론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음을 언급하였다.

### 1) 가족 간 대화 단절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은 서로 대화를 할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환경이었다. 경제활동으로 바빠진 부모님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가족 간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한 가족 환경이었다.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가족 간의 대화는 더욱 적어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 또한 불편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가족하고 같이 뭘 해 본 적이... 진짜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가족 다 모여서 밥 먹은 건 몇 달 될 것 같은데... 가끔 밥 먹을 때나 텔레비전 볼 때, 아니면 집에서 마주칠 때 잠깐 잠깐 말하는 정도? (연구참여자 1)

음... 만날 일이 많이 없어요. 아빠는 일찍 나가셨다 늦게 들어오시니까... 근데 만날 때도 딱히 할 얘기가 없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4)

### 2) 무관심한 가족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은 자녀가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시고, 묻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님은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뭐하는지 모르시죠. 아마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을 걸요?... 서로 바빠서 관심 가질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저도 말을 안 듣긴 하는데, 동생은 아예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말 거의 안 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동생이랑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친하지도 않아요. (연구참여자 5)

### 3) 가족과의 시간이 어색함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들이 각자의 생활에 열중하여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보였다. 가족과 여행을 떠난 것은 연구참여자가 아주 어렸을 때 뿐이었다고 하였으며, 집에 함께 있어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식사를 할 때에도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각자의 휴대폰을 보며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가족끼리 여행가고, 얘기하고... 생각만 해도 어색하고 불편해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그냥 지금이 편해요. (연구참여자 4)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놀진 않잖아요? 같이 집에 있어도 무엇을 같이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방에서 할 것 해요. 저도 집에 있으면 거의 제 방에만 있고 잘 안 나가요. (연구참여자 2)

#### 다. 가족 간의 약한 유대관계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은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형제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 아예 무시 혹은 데면데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갈등상황이 생길 때에는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족 간의 약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1) 잦은 다툼을 하는 가족

연구참여자들은 어렸을 때 부모와의 다툼을 지켜보거나, 연구참여자들과 부모와의 직접적인 다툼을 경험하면서 불안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형제 간 다툼 또한 경험하게 되면서 냉랭한 가족 분위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엄청 많이 봐왔어요. 거의 매일 다투셔서 집 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매일 눈치 봐야 하는 게 싫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맨날 밖에 있다가 들어가고, 하여튼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연구참여자 1)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중학교 때는 진짜 형이랑 많이 싸웠어요. 거의 컴퓨터 서로 하겠다고 싸웠죠. 진짜 코피 나도록 싸우기도 하고... 장난 아니었죠. (연구참여자 3)

##### 2) 불안한 공간인 집

연구참여자들은 집에서의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가족과의 잦은 다툼을 경험하며 부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집이라는 공간이 편안하지 않고, 갈등상황이 생기면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낸 경험도 있었다.

짜증나면 바로 집 나와 버려요. 계속 있어봤자 더 싸우게 되고, 서로 풀려고 노력

하는 자체를 안 하니까 (연구참여자 4)

집은 그냥... 들어가야 하니까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자고만 바로 나오는 그런 공간? 저는 어차피 기숙사에 있으니까 주말에만 집에 가는데, 그 때도 친구 집에서 잘 때가 많아요. (연구참여자 2)

#### 라.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가족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되었다. 대화의 부족은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어졌고, 억압적인 대화방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 1) 자녀를 억압하는 부모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사소통 구조로 자신을 억압하는 부모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었다. 이는 곧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강한 반항심을 이끌어내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저도 제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는 무조건 아빠 말이 맞고 제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더 반항심 생기는 것 같고... 뭐랄까 그냥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랄까?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해버려요 (연구참여자 5)

저랑 아빠는 대화를 하기만 하면 싸워요. 그냥 아빠랑 저랑 대화법 자체가 안 맞고, 처음엔 그냥 이야기 하다가 사소한 걸로 끝은 꼭 싸워요. 그냥 안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가출도 많이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3)

##### 2) 자녀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들이 그들의 의사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심한 낙담을 했다. 자신을 골칫덩이 취급을 하는 부모를 보며 자신감을 잃어 갔으며, 자존감 또한 매우 낮은 상태를 보였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골칫덩이에요. 제가 인문계 갈 성적도 안 되고, 실업계 학교에 가면 애가 더 망가질 것 같다고 부모님이 엄청 알아보다가 여기 기숙학교에



가라고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연구참여자 2)

제가 작년에 국가에서 보는 시험 있잖아요 그거 본다고 공부하는데 아빠가 그냥  
특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니가 붙을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와 어떻게 자기 자식한  
데 그런 말을 해요? (연구참여자 4)

**3) 형제 간 갈등**

연구참여자들에게 형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 형제 간 사이가 좋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잦은  
다툼을 겪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차라리 형제가 없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다툼 후에는 떼면떼면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누나보다는 남동생이 있어야 했어요. 누나는 저 엄청 때리는데 전 여자니까 못 때  
리잖아요. 차라리 남동생이어서 완전 뺏어야 하는데... (연구참여자 1)

예전에는 정말 거의 매일 싸웠어요. 진짜 주먹질 하면서 싸웠어요. 형이라고 욕하  
고, 막말하고, 시키고... 이젠 거의 말 안하고 뭐 하는지도 신경 안 써요.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서로 말도 안 걸어요 (연구참여자 3)

**마. 부모의 지지체계**

연구참여자들은 바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형제와의 갈등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한 흡연으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내 흡연행동을 후회하며 금연시도  
로 이어졌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금연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으로 ‘부모님’을 언급하며  
자신의 금연을 누구보다 원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곧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금  
연에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든든한 부모님 존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금연을 한다면 가장 기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존재로 부모님을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금연을 위해 도움을 청한다면 가장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도와  
줄 마음이 있는 존재로 부모님을 언급하며 자신의 마음 속 부모님은 든든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가 금연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요? 그건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친구들 중에

서도 누군가가 금연 하겠다 했을 때 친구들은 욕하면서 넌 못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당연히 금연한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죠. (연구참여자 2)

아무리 싸우고 너 때문에 속 썩는다고 욕해도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내 편이죠. (연구참여자 5)

## 2) 자녀의 금연을 응원하는 부모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쓸모 없는 존재,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 등으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했었지만, 금연을 위해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 동안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진심으로 금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학교에서 흡연하는 것 적발 되고 학교에서 엄마한테 연락이 갔어요. 그 전화 받고 엄마가 완전히 충격 받으셔서... 그 모습 보고 저도 잘못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며칠 지나서 엄마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엄마는 널 믿는다. 사랑한다 그런 내용... 그 메시지 받고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후회해서 (연구참여자 5)

저 금연하게 한다고 할머니가 저 병원에 데려가서 폐 사진도 찍어보게 하고, 담배 끊으라고 엄청 잔소리 하셨어요. (연구참여자 4)

# V. 결 론

##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흡연청소년들의 가족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흡연청소년의 흡연행동과 가족경험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흡연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흡연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거나 흡연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흡연청소년의 흡연시작 원인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일차적인 환경인 가족경험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흡연청소년들의 가족경험을 탐색하였는

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흡연이라는 행동을 가족경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접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흡연 행동을 보았으며, 자연스럽게 모방하는 모습을 거치게 되면서 언젠가는 본인도 부모와 같이 피우게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곧 실제 흡연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더구나 부모 뿐만 아니라 가족 중 형제도 같은 방식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미성년자인 연구참여자를 대신해 성인이 된 형제가 담배를 대신 구입해 전달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의 흡연행동이 지속되면서 학교에서, 주민으로부터, 더 나아가 부모가 직접 자녀의 흡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금연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 마땅히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부모도 피우기 때문에 금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흡연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원의 흡연자(부모나 형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이 흡연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2배 정도 더 흡연을 원한다[8]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이 흡연행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가족경험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흡연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대한 가족구성원과 흡연 관련 물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자녀의 흡연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시발점이자 중요한 매개체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적 안정과 지지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은 연구참여자들이 흡연에 관심을 갖는데 촉진요인이 되었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맞벌이 가정으로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통제받는 시간이 적었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또한 자녀에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의 흡연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집에 함께 있어도 어색한 가족은 가족 간 대화의 부재로 이어지며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외로움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흡연을 하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흡연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갖거나 공감적인 양육태도로 일관했을 때 자신의 흡연행동을 통제하려고 스스로 노력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양육태도로 일관한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반발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감소되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공감적 지지를 받을 수 없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족의 자리를 대신하였고, 스트레스 해소를 손쉬운 방법인 흡연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가족 간의 약한 유대관계는 연구참여자들의 흡연행동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몰입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장과정에서 가족 내에서의 잦

은 다툼을 경험하였고 이는 가족에게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나 정서적 지지가 아닌 심리적으로 불안과 긴장감을 호소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흡연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소년들은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 내 체계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얻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약한 유대관계의 가족체계에서 청소년들은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대신 멀리 떨어져 혼자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을 불안함으로 간주하고 가족 간의 약한 유대관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흡연행동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다섯째, 부모의 지지체계는 연구참여자들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함께 흡연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흡연을 해왔으며, 잦은 지각, 불성실한 학교생활, 결석, 음주 등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부모님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금연을 한다면 가장 기뻐할 사람으로 연구참여자들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친구 보다도 부모님이라고 망설임 없이 언급하였다. 또한 자신이 금연을 한다고 선언한다면 언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부모님이 처음 연구참여자들의 흡연행동을 아셨을 때 혼내시며 잔소리하시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포기하셨을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내면에는 부모님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부모의 지지체계는 자녀가 흡연행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동기부여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흡연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지지적인 가족경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있어 가족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알린다면 금연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적인 치료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청소년과 가족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반드시 가족체계와 관련한 상담을 포함시켜 이에 따른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흡연을 통해 드러났으나 이면에는 가족환경, 의사소통의 구조, 양육태도 등 여러 문제가 상호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흡연예방 및 금연과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 이들의 가족경험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야 적절한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적절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청소년들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금연 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가족체계를 먼저 살피고 이에 따른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흡연에 대한 개입은 부모 및 형제자매와 같이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흡연에 관대한 부모와 가족은 청소년이 흡연을 처음 접하고 흡연행동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 매개체인 동시에 흡연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초기 관문으로 작용함이 밝혀졌다. 또한 부모와 가족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접촉하게 되는 사회 집단이며[16],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는 존재로 청소년 흡연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과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가족지원 기관들과 연계하여 가족의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관대한 흡연문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흡연은 하나의 재미의 요소로, 일상적인 행위로 고착되었고, 자녀의 흡연행동을 인식한 부모는 스트레스 해소 요인, 부모의 흡연, 청소년기의 일시적 반항 등으로 간주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연을 권유하지 않고 침묵하였다. 결국 이들의 흡연행동은 바로 잡아져야 할 시기를 놓쳐 흡연행동 증가와 함께 담배에 중독되는 결과를 낳았다. 청소년 흡연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인 문제로써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성인들에게도 함께 시행하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족경험이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 모니터링으로 명확한 안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흡연청소년을 가족경험과 관련지어 통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흡연청소년의 흡연행동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다소 구별된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흡연청소년 개인의 흡연행동이 아닌, 흡연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지역사회 등 지지체계를 운영하고 자원을 탐색하여 금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흡연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함으로써 실천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흡연청소년의 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인 가족특성, 또래관계나 개인적 기질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 참여하는 흡연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통하여 흡연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흡연행동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가족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는데, 흡연행동은 청소년들에게 가족경험 외에도 학교생활과 또래관계 등의 경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촉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가족경험 이외의 요

인과 흡연행동과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흡연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그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Hoffman, B. R, Sussman, S., Unger, J. B., & Valente, T. W, (2006).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 theore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Substance Use*, 41, 103-155.
2. Azagva S, Baskerville N. B., & Minaker L. A., (2015). A Comparison of adolescent smoking behavior", *Preventive Medicine Reports*, 2, 174-177.
3. 이현주, 김덕진 (2017).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 12(3), 423-431. (Lee HJ, Kim DJ (2017), Effects of Adolescent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on Smoking.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ellness*, 12(3). 423-431)
4. 김재엽, 이근영 (2010).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2(2), 53-74. (Kim JY, Lee KY (2010). The effect of adolescents'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s on school violence perpetrato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e Journal of Korean Youth Welfare Society*, 12(2), 53-74)
5. 김혜원, 김양근, 백재용, 홍창빈, 이가영, 박태진, 김진승 (2017). 한국 청소년의 흡연과 자살 관련행동과의 관계: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Korean J Health Promot*, 17(4), 219-233. (Kim HY, K YK, Baek JY, Hong CB, Lee KY, Park TJ, Kim JS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suicide-related behaviors in Korean adolescents,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17(4), 219-233)
6. 함진선, 현명호, 임영식 (2006). 스트레스, 중요타인의 흡연 및 흡연에 대한 신념이 청소년 흡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1(1), 91-207. (Ham JS, Hyun MH, Yim YS (2006). The effect of stress, smoking of significant others and beliefs about smoking on adolescent smoking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1(1), 191-207)
7. 김성봉, 홍달아기, 이선우, 황은경 (2014). 가족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청소년의 가족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19(3), 599-625. (Kim SB, Hong DAK, Lee SW, Hwang EK (2014). A study on the family experiences of adolescents with problem behavior according to family typ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hild and Family Welfare*, 19(3), 599-625)
8. 박아영, 김철웅 (2019). 청소년 남학생 흡연의 관련요인: 가족구성원 흡연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446-457. (Park AY, Kim CW (2019). Relevant factors of adolescent male student smoking: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 smoking, *The Journal of Korea Industry-Academic Technology Association*, 19(3), 599-625)
9. 신성례, 김애리 (1998). 한국청소년들의 흡연 행위에 따른 부모의 흡연 여부 및 지각된 부모의 태도, *한국성인간호학회*, 10(2), 302-310. (Shin SR, Kim AR (1998). Parental Smoking and

-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ccording to Smoking Behavior of Kore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dult Nursing, 10(2), 302-310)
10. 김원경 (2014). 청소년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 관련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 11(2), 63-85.  
(Kim WK (2014). A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smoking experience according to the gender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Future Youth Association, 11(2), 63-85)
  11. 이인숙 (2004). 군 지역 초등학교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0(3), 72-281.  
(Lee IS (2004). A study on the smoking statu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county area, The Journal of Children's Nursing Society, 10(3), 72-281)
  12. 전영실 (2007). 가족유대와 비행의 관계, 형사정책, 19(1), 277-304. (Jeon YS (2007). Relationship between family ties and delinquency, The Journal of Criminal policy, 19(1), 277-304)
  13. 황성현 (2010). 부모와 친구요인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1), 81-103. (Hwang SH (2010). Effect of parent and friend factors on adolescent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 Th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Sciences, 27(1), 81-103)
  14. 이수연, 전은영 (2001).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환경적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197-217. (Lee SY, Jeon EY (2001). Psycho-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smoking, The Journal of Youth Studies, 8(1), 197-217)
  15. 임용택 (2013).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3), 273-283. (Yim YT (2013). A Study on Smoking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Kore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18(3), 273-283)
  16. 광연희, 김태준 (2011).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과 친구요인에 관한 연구, 교류 분석상답연구, 1(1), 47-71. (Kwak YH, Kim TJ (2011). A Study on Family Factors and Friends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Smoking, The Journal of Exchange Analysis Counseling Research, 1(1), 47-71)
  17. 김영미 (2006).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통제적 요인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13(6), 151-178. (Kim YM (2006).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social control factors for adolescent drinking and smoking, The Journal of Korean Youth Association, 13(6), 151-178)
  18. 손정남 (2002). 흡연행위에 따른 남고생의 가족기능 및 가족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1), 78 (Son JN (2002). A Study on Family Functions and Family Type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moking Behavior, The Journal of Psychiatric Nursing Society, 11(1), 78)
  19. 조규희, 목형균 (2019).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관련요인 분석: 가족구조, 가정 내 간접흡연 경험, 친한 친구 흡연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45(3), 69-82. (Jo KH, Mok HK (2019).